

교육적 측면에서의 접속어 연구

이 은 희 (한성대학교 강사)

목	차
1. 서론	4. 접속어의 유형
2. 선행 연구 검토	5. 교육적 적용
3. 접속어의 기능	6. 결론

1. 서론

현재 국어 교육은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언어 지식 분야와 언어 사용 기능 분야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의 구성은 대등한 위상을 가진 두 영역의 실제적 분리로서가 아니라, 영역들의 성격에 따른 이원적 분류¹⁾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어 교육의 목표를 학생들에게 국어 사용 기능을 길러주는 것²⁾이라고 볼 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어과에서는 언어 사용 기능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지식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언어 지식 분야에 대한 교육을 부차적으로 병행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언어 사용 기능의 향상으로, 언어 지식 분야는 언어 사용 기능의 향상을 위해 필

- 1) 국어과 교과 목표와 관련해서 영역들의 역할을 논의한 것으로 노명완(1988)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언어 지식과 문학 지식은 표현 이해의 언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적 기초로 필요하며, 국어과의 교과 목표는 표현 이해의 언어 활동을 통한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이라고 보았다.
- 2) 국어 교육의 목표를 논하는 데서 문학 교육에 관한 것은 본 필자의 능력 밖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요한 지식적 기초를 제공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지식 교육이 이와 같은 본연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 기능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가져야만 할 언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언어 지식 교육의 상황을 살펴 보면 언어 지식은 언어 사용 기능 향상을 위한 지식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구호의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교과서 편성이나, 교과서를 이용한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지도에서는 언어 사용 영역과 언어 지식 영역이 연계성을 가지고 설정된 것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두 부분을 서로 분리된 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언어 지식 교육이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원론적 측면의 구호의 나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언어 지식 교육의 영역들 중에서 접속어³⁾에 관해서 살펴 보겠다. 접속어는 문장의 층위를 넘어서 전체로서의 글의 성립에 관련된 요소로서, 이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은 글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상 실제 언어 사용에서 접속어를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접속어라는 언어 형식 자체에 대한 개념적 지식(knowing what)과 언어 사용의 실제에서 개념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절차적 지식(knowing how)이라는 지식의 두 측면을 함께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서 접속어에 대해 지식을 가지려면 접속어라는 언어 형식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아는 것과 함께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아는 것이 함께 중요시 된다. 본고에서 접속어에 대해 살펴보려는 이유는 접속어는

3) 본고에서 사용되는 접속어의 개념은 현행 학교 문법에서 품사상으로는 접속부사로, 문장 성분상으로는 독립어로 취급되고 있는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류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부류에 대한 용어 설정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어 왔지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접속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기능상의 특질로 인해서 언어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라는 지식의 두 측면을 함께 가진 것이므로, 접속어의 고찰은 언어 사용 기능의 향상을 위한 언어 지식 영역 확립이라는 언어 지식 영역의 위상 정립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접속어에 관해서는 문법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간의 논의의 주된 경향은 품사와 문장 성분 설정을 주된 관심사로 하는 것과, 접속어가 가지는 기능적 특성을 의미적 측면에서 연구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언어 사용 기능을 위한 언어 지식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 하나는 접속어 이해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이는 언어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제기된 텍스트 언어학의 연구 경향상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언어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성 모색이라는 응용 언어학적 입장에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국어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언어 이해 방식의 탐색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론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방향성은 두 가지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응용을 위한 보다 유용한 이론의 정립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입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언어 사용기능의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언어 지식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는 목적 위에서 접속어 이해 및 지도의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접속어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들을 지적해 본 후, 접속어의 기능에 대해 새로운 측면에서 조명을 해 보고, 접속어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이를 국어 교육을 위해 적용해 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

2. 선행 연구 검토

이 장에서는 접속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어학적 입장에서 행해진 것과 국어 교육적 입장에서 행해진 것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겠다. 접속어에 대

한 어학적 측면의 연구는 국어 문법 연구의 초기 단계부터 품사 설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국어교육적 측면에서 접속어를 연구하는 것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접속어에 대한 어학적 측면에서의 선행 연구를 살펴 보겠다. 어학적 측면에서의 접속어에 대한 연구는 품사나 성분 설정 문제를 논의한 것과 접속어가 가지는 기능적 특성을 의미적 측면에서 논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접속어에 대한 품사 설정 문제⁴⁾는 국어 문법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접속어를 접속사라는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현배에서 접속어를 부사의 하위 범주인 접속부사로 파악하려는 입장이 제기된 후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지 않으려는 주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두 가지 입장에 따라 접속어에 대한 품사 설정 논의는 접속어를 접속사라는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려는 경향과 부사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려는 입장으로 대립되고 있다⁵⁾. 접속사를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는 입장으로는 주시경, 이희승, 이용주, 김민수 등을 들 수 있으며, 접속사를 부사의 하나로 설정하는 입장으로는 최현배, 이승녕, 유목상 등을 들 수 있다. 부사로 파악하려는 입장에서는 접속어의 문장 내적 기능을 중시하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의 하나로 접속어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 접속어를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는 입장에서는 두 문장의 관련성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접속사와 부사의 의미적 형태적 기능적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접속어를 접속사라는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는 입장을 살펴 볼 때도 접속사라는 범주가 나타내는 바가 논자에 따라 상이함을 주의해야 한다. 즉 접속사라는 품사는 국어 문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품사로 설정되기는 했으나 그 범주가 확정되지 않고 사용되어 왔다. 근대적인

4) 접속어에 대한 품사 설정 논의로는 이 외에도 도수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접속어를 대용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대용이라는 측면에서 접속어를 대용의 하나로 보는 데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뒤에서 살펴볼 응집 현상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5) 접속어의 품사 분류 방식의 변천에 관해서는 이광정 (1987)을 참고할 수 있다.

국어 문법 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유길준(1908)에서는 접속사를 ‘言語의 中間에 挿入하여 前後承接하며 上下連續하여 其意를 相通하는 語’라는 식으로 기능에 따라 정의하면서, 조사, 어미, 부사 등의 다양한 품사를 포괄하는 범주로 접속사를 설정하고 있다. 주시경(1910)에서도 문법적 기능 중심으로 접속사를 설정해서 접속조사 ‘와’와 용언의 연결형 어미를 포함하는 범주로 접속사를 규정했다. 또 김윤경(1948)에서는 접속사라는 품사는 설정하고 있지만 이에 속하는 것은 접속조사와 접속어미로 규정하고, ‘그러나, 그리고, 또는’류는 접속부사로 규정했다. 접속사를 접속부사류에만 한정시키는 논의는 문법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이규방(1923)이나 이병기(1929)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희승(1949) 이후에 와서 접속부사류만을 접속사로 규정하는 경향이 확립되었다. 즉 접속사라는 품사 설정의 방법은 학자에 따라 기능적인 관점으로 규정하는 것과 기능과 형태에 따라 규정하는 방식의 두 방향으로 나타나다가, 현재에 와서는 형태와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속어의 품사 설정 논의는 1963년에 확정, 공표되어서 중학교에서는 1966년 이후에, 고등학교에서는 1968년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학교문법통일안에서 접속사라는 품사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부사의 하위 범주의 하나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문법통일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접속사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는 그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접속어에 대한 문장성분 처리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문장 성분 설정의 방식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장성분 설정 방식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개괄해 보면 주어, 서술어, 객어로의 삼분법, 주어, 서술어, 객어, 수식어의 사분법, 이에 보어를 더한 오분법, 이에 독립어와 부사어를 더한 칠분법, 이에 접속어를 더한 팔분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접속어를 어떠한 문장성분으로 설정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장 성분 설정 방식에 따라 접속어를 독립된 문장성분으로 설정하는가, 아니면 접속어를 부사어에 포함시켜

- 6)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에도 통일안의 결정을 비판하며 접속사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는 장정출(1982), 이광정(1987) 등이 있다.

서 보는가, 아니면 접속어를 독립어와 부사어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접속어가 가진 기능상의 특징을 의미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들을 살펴 보겠다. 이와 같은 경향의 연구들은 먼저 문장들이 이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논리적 관계들을 계층적으로 수립한 후 각각의 논리적 관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접속어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탐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에 주로 문장론 연구에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와서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방식의 도입과 함께 다시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물로 문덕수(1977), 김봉균(1980), 노석기(1987), 김일용(1989), 강우원(1991)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각각의 연구에서 분류의 위계 문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언어 요소들이 서로 상이한 범주에 소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들 연구들이 과연 문장이 이어질 때 나타나는 논리적 관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접속어가 글 중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접속어에 대해 언어교육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개괄해 보겠다. 언어교육적 측면에서의 접속어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학술적인 성격을 띠고 이루어진 연구로는 석사 논문으로 발표된 김정애(1988)와 정오(1991)이 있다. 이들 두 연구는 모두 현장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접속어 자체의 성격 규명이나 교수 방법 개발을 위한 위계 설정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접속어에 대해 이루어진 기존 연구 결과들을 수용해서 현장 교육에 적용하려고 한 데서 한계를 가진다. 이렇게 본다면 아직 접속어에 대한 국어 교육적 측면의 연구는 시작 단계로, 접속어라는 언어 형식이 가진 특성이나, 교수 방법을 진지하게 탐색하려는 연구가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접속어의 기능

지금까지는 품사 설정이나 문장 성분 논의를 중심으로 접속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는 접속어⁷⁾가 가지는 기능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 접속어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 구조 속에서 접속어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언어 사용의 맥락 속에서 접속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접속어가 가지는 기능을 글 구조 속에서의 기능과 언어 사용 맥락에서의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먼저 글 구조의 측면에서 접속어가 가지는 기능을 살펴 보겠다. 여기서는 접속어는 글 구조 전체와 관련을 가지는 언어 현상임을 밝히고, 응집성 및 통일성의 두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겠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접속어는 언어 이해 및 표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접속어라는 개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접속어는 하나의 문장을 대상으로 한 언어 현상이 아니라 문장보다 한 층위 위에 있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언어 현상이다. 이와 같이 접속어를 문장 층위보다 한 단계 위의 언어 현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은 품사 분류에서 접속어를 접속사라는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 문법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접속어를 전체 글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두 문장간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데에서 그쳤다. 언어 현상을 전체 글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것은 최근에 언어 연구의 새로운 방법으로 제기된 텍스트 언어학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텍스트 언어학의 틀 안에서 접속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은 응집성(cohesion)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응집성의 관점만으로는 접속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에, 접속어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성(coherence)의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응

7) 접속어에 대한 기능을 논의함에 앞서서 접속어와 접속 관계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속 관계는 접속어가 없이도 글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접속어는 접속 관계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집성의 관점에서 접속 현상을 설명하는 입장을 살펴 본 후, 이의 한계점과 통일성의 관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문장 층위를 벗어나서 텍스트의 층위에서 응집성의 표현 방식의 하나로 접속어를 이해하려는 시도⁸⁾는 Halliday와 Hasan(1976)이 접속어를 응집(cohesion)의 한 유형으로 이해한 것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 Halliday 등은 응집은 의미적 개념으로 텍스트 안에 존재하면서 그것을 텍스트로 정의해주는 의미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담화 속의 어떤 요소의 해석이 다른 요소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것⁹⁾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응집 관계는 의미적 관계이지만 언어적으로 표현될 때는 다른 의미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계층적 조직에 의해 나타나는 응집적 연결(cohesive tie)에 의해 표현된다고 보았다. 응집의 유형을 지시(reference), 대치(substitution), 생략(ellipsis), 접속(conjunction), 어휘적 응집(lexical cohesion)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응집의 유형 중 하나로 접속이 포함되는 것으로 접속 현상을 설명했다. 이들의 연구는 응집을 글의 부분들 간의 의미적 연결 관계로 보면서 이러한 연결 관계가 언어적으로 나타난 것을 찾아서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이 가지는 기능상의 특질을 탐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응집성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Beaugrande & Dressler (1981)는 하나의 체계로서의 텍스트가 가지는 안정성은 발화 출현의 안정성에 의하며, 이러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표면적 텍스트에 구조적 유형을 부가하는 언어의 통사적 체계라고 보면

8) 응집의 기술 체계를 조직화하려고 처음 시도한 것으로는 Harris(1951)가 "Methods in linguistics"에서 문장을 초월한 언어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텍스트가 가지는 성질을 해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응집의 기술 체계에 관심을 가진 것을 들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응집에 관한 연구는 Halliday & Hasan의 연구이므로 이들의 연구를 살펴 보고자 한다.

9) "The concept of cohesion is a semantic one : it refers to relations of meaning that exist within the text, and that define it as a text"

"Cohesion occurs where the interpretation of some element in the discourse is dependent on that of another"

서, 이러한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통사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응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들의 응집성의 개념은 Halliday & Hasan의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언어의 표면적 구조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응집성의 관점에서 접속어를 파악하는 것은 접속어의 기능을 선행 의미 요소와 후행 의미 요소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언어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국어의 접속어를 연구한다면 접속어가 두 요소 사이에 사용될 때 어떠한 의미적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선행 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에 다양하게 이루어진 의미 기능에 따른 접속어에 대한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 품사나 문장 성분 논의에서 이루어졌던 언어 형식 자체에 대한 관심과 의미 기능에 관한 논의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의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형태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틀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응집성의 틀 안에서 접속 현상을 파악하려는 연구 경향은 접속어 이해에 많은 시사점을 주지만, 이것만으로 접속 현상을 살피려는 것은 지나친 형태 중심적 태도로 흐르기 쉬우며 두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만 집착해서 글의 전체적 모습 파악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전체로서의 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접속어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성(coherence)¹⁰⁾의 관점을 도입해서 글의 전체적 구성을 위한 연결어로 접속어를 파악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통일성의 개념에 대해서 Beaugrande & Dressler(1981)는 통일성이란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식 공간 체

10) The STABILITY of the TEXT AS SYSTEM is upheld via a CONTINUITY OF OCCURRENCES ... The most obvious illustration is the language system of SYNTAX that imposes organizational patterns upon the SURFACE TEXT. In using the term "cohesion" ("sticking together") we wish to emphasize this function of syntax in communication.

11) 통일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통일성을 문장들과 전체 글의 일반적 주제와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 통일성(global coherence)과 특정한 인접 문장들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통일성(local coherence)으로 나누고, 부분적 통일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응집성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계로 개념들과 관계들을 결합시킨 산물¹²⁾이라고 보았다. 응집성과 통일성의 개념을 비교해 보면, 응집성은 측정 가능한 언어적 요소와 그들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된 것인데 반해 통일성은 개념들의 전체적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며, 응집성은 글 안에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인 반면 통일성은 글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형성해 나가는 인지적 현상의 결과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글 전체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을 도입해서 접속어를 연구하게 되면 연구의 중점이 요소들 사이의 부분적 연결 관계에서 벗어나서 글의 전체적인 의미의 연결 관계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글의 이해나 생산 과정에서 접속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단어의 연결에서 단락의 연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언어 단위를 접속어가 이어주며, 인접 문장이나 단락을 접속하거나 또는 인접하지 않는 문장이나 단락을 접속하는 등의 다양한 거리 관계를 가지며 접속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통일성의 관점에서 접속어를 이해할 때는 글 전체의 의미 관계와 관련을 지으면서 접속 범위와 접속의 거리 문제를 중심으로 접속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접속어 이해를 위해서 통일성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응집성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통일성과 응집성의 관점은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접속어 이해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접속 관계의 설정은 전체로서의 글이 가지는 통일성의 관점에서 가능하지만, 개별적인 접속어의 출현은 각각의 형태가 가지는 응집적 연결로서의 기능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응집성과 통일성의 두 개념은 접속어 이해의 두 측면으로, 이 중 어느 측면에 더 중점을 두는가에 따른 문제이다.

또한 접속어는 글의 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과 독해를 대하는 입장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응집성과 통일성 중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는가가 달라질 것이다. 글의 구조를 살피는 데 있어서 구조 분석의 층위는 세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¹³⁾. 첫번째 층

12) "Coherence will be envisioned as the outcome of combining concepts and relations into a NETWORK composed of KNOWLEDGE SPACES centred around main TOPICS"

위는 미시구조(microstructure)의 단계로 여기서는 개별 명제나 정보의 항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두번째 층위는 거시구조(macrostructure)의 단계로 여기서는 문단에 제시된 복잡한 명제나 개념들이 어떻게 주제에 연결되는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글의 논리적 수사적 관계를 분석해서 글의 의미적 짜임을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세번째 층위는 최상위구조(top-level structure)의 단계로 여기서는 전체로서의 글의 조직 원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글의 전체적 구조는 이들 세 층위가 위계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글의 응집성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은 미시구조적 층위의 분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글의 통일성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은 거시구조적 층위의 분석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의 분석 층위의 문제와 함께 글 구조 분석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글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에는 상향적 방식과 하향적 방식이 있는데, 상향적 방식은 언어 기호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을 작은 층위의 언어 단위에서 시작해서 보다 큰 층위의 언어 단위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는 반면, 하향적 방식은 언어 기호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을 독자의 개념 설정에서 시작해서 설정된 개념을 확장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글의 내용을 표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어느 관점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글의 구조 분석의 층위 중 어느 쪽에 주된 관심을 두는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향적 방식을 취할 경우 글의 하위 단위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며, 하향식 방식을 취할 경우 글의 상위 단위에 보다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접속어를 파악할 때도 글 이해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글의 미시구조적 층위에 주된 관심을 두고 상향적 관점으로 독해를 보면 응집성의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될 것이며, 글의 거시구조적 층위에 주된 관심을 두고 하향적 관점으로 독해를 보면 통일성의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기해야 할 점은 글의 구조 분석에 있어서 미시구조와 거시구조는 서로 연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독해의 과정도 상향식이나 하향식의 어느 하나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

13)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Meyer & Rice (1984)를 참고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본다면 접속어를 파악하는 것도 독해를 볼 때 어느 측면을 보다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접속어가 언어 사용 맥락 속에서 가지는 기능에 관해 살펴 보겠다. 접속어가 언어 사용의 맥락 속에서 가지는 기능은 논리적 연결어로서의 기능과 심리 표출의 기능의 두가지로 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 연결어로서의 기능은 언어 이해의 측면과 보다 큰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심리 표출의 기능은 언어 표현의 측면과 보다 큰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접속어가 가지는 논리적 연결어로서의 기능은 접속어가 사용됨으로써 글의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연결시키는 기능을 의미한다. 접속관계는 내재적인 의미적 관계이고 접속어는 의미 관계의 표출이므로, 실제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는 접속관계가 접속어를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보다 많으며¹⁵, 이렇게 접속어가 사용되지 않아도 의미적으로 접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접속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글의 문장들 사이에 나타난 접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이와 같이 실제적인 관심을 나타내거나 사실을 보고하기 위한 말이 보통의 언어라면 느낌이나 태도나 해석을 나타내는 말은 시적인 언어라 할

14) 언어 사용 맥락에서 접속어의 기능을 살필 때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중점이 이들 중 어느 측면에 주어지는가를 고려해본 것이다.

15) 글의 종류에 따라 접속어가 명시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Rudolph(1988)에서는 접속어 사용의 이유를 심리적 거리감의 유지에서 찾으면서, 접속어 사용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글의 종류에 따라 접속어 사용의 빈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철학이나 과학적 연구물이나 기사문과 같이 글에 나타난 사건이나 행동에서 화자와 청자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글에서는 접속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나, 소설처럼 청자가 글에 나타난 사건이나 행동에 몰두하도록 하는 글에서는 접속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수 있다. ()¹⁶ 같은 교통 사고를 두고도 「교통사고가 났어」라는 말과 「눈으로 볼 수 없었어」라는 말은 전자가 사실을 보고하는데 비해 후자는 그 사실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나 해석을 나타냄으로서 시적인 방향을 취하고 있다.

(2) 우리의 미래는 다양하다. 미래에는 영광된 미래도 있고, 비참한 미래도 있을 수 있다. () 어두운 미래가 있는가 하면, 즐겁기만 한 아름다운 미래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중간쯤 되는 미래도 있을 것이다.

(3) 신라의 화랑도는 원시 사회의 공동체적인 청소년 수련 단체의 전통을 이어 받아 새 시대에 알맞게 재조직된 제도이다. 처음에는 나라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택하여 원화라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모아 화랑도를 조직하였다. 그러다가, 6세기 중엽인 진흥왕 때에 이르러 귀족 출신인 청소년 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품행이 바른 사람을 뽑아 화랑으로 받들게 하였다 한다. () 진흥왕 때에는 바로 신라가 강력한 고대 국가의 체제를 형성하고 외부로의 정복 사업을 전개하였던 시기였으므로,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울 전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공동체적인 씨족 사회의 유제를 개편한 화랑도이다.

위의 글들에서 명시적인 접속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글의 내용 이해에 따라서 (1)의 글에는 예시의 접속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고, (2)의 글에는 병렬의 접속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3)의 글에서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관계를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접속어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접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접속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글보다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접속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접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글을 다 읽은 후에 접속관계에 대한 재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접속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접속관계를 재구하면서 글을 이해하는 것은 접속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보다 글 이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며, 접속관계 파악은 언어적 사실과 함께 언어 사용자가 가진 배경 지식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기에 배경

16) 접속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접속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로 표시했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언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독자의 경우¹⁷⁾에는 글 이해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즉 글의 주제가 독자에게 생소한 경우나 글의 내용 전개가 복잡할 경우 접속관계의 이해가 힘들게 될 것이다. 또한 접속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접속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물론 글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전체적인 글의 논리적 전개에 의해서 접속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글을 읽는 도중에서는 글의 접속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¹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 사용 맥락에서 접속관계는 글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면서 글을 구조화 시킨다. 이러한 접속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접속어는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글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는 단서로 작용하면서 글 이해가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루어지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한다. 접속어의 이러한 역할은 글의 주제가 생소할수록, 글에서 사용된 언어가 복잡할수록 보다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접속어가 가지는 심리 표출의 기능은 접속어를 사용할 때 언어 사용자의 심적 태도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 사용자가 접속어라는 언어 형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결정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언어 사용자의 심적 태도가 표출된다. 즉 언어 사용자가 글을 생산할 때 접속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명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인식된 관련성에 대해 어떤 유형의 접속관계가 적절한가를 결정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결정된 접속관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정한 후, 언어적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어떤 유형의 언어적 방식을 사용해서 접속관계를 표현할 것인가¹⁹⁾를 결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접속어라

-
- 17) 언어 이해 과정을 위계적인 과정으로 볼 때 언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독자의 경우 하위 층위의 언어 단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상위 층위의 언어 단위 처리에 기울일 관심의 양이 부족하게 된다. 접속관계는 글 처리 과정에서 상위 층위에 속한 것이기에 언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독자의 경우 관심을 기울이기가 힘든 부분이 될 것이다.
- 18) 특히 글이 짧은 경우나 접속관계를 파악해야 할 문장의 다음에서 글의 내용 전개가 변화하는 경우에서는 글을 끝까지 다 읽은 후에도 접속관계 파악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19) 국어에서 접속관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조사나 어미의 사

는 언어적 방식을 통해 접속관계를 표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접속관계를 표현하는 접속어 군 중에서 어떤 접속어를 선택해서 표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결정의 과정은 모두 접속어 사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이지만, 특히 접속어 사용에 있어서 언어 사용자의 심적 태도가 강하게 표출되는 부분은 이러한 다양한 결정의 과정들 중에서 특히 명제의 관련성의 유형에 대한 인식과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를 선택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명제 내용에 대해서도 언어 사용자에 따라서 관련성의 인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관련성의 인식이 달라지게 되면 접속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동일하게 인식된 접속관계를 접속어라는 언어적 표현 방식을 통해 표현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어휘적 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표현된 언어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두 부분들 중에서도 특히 주의를 기해야 할 부분은 명제의 관련성의 인식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인식된 접속관계의 언어적 표현 방식의 다양성은 문체적 차이라고 보아 개인적 표현법의 특성으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명제간의 접속관계 유형의 인식은 글을 조직하는 방식 자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서 명제간의 접속관계 유형의 파악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자연 법칙과는 달리 인과적인 법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명제간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기에, 언어 사용자의 배경 지식이나 의도 등에 따라서 동일한 명제에 대해서 다양한 접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어 사용자의 접속관계 유형 파악 방식의 다양성은 매우 폭 넓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언어 사용자가 접속관계 유형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언어 이해자의 글 이해 방식이 영향을 받게 된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글의 전체적 맥락상 언어 사용자가 사용한 접속관계의 유형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언어 사용자가 접속어를 통해 언어적으로 명시화해서 사용한 접속관계의 유형과 글의 내용 전개상의 접속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언어적으로 명시화된 접속관계와 글의 논리전

용, 접속어의 사용을 생각할 수 있다.

개상 나타나는 접속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언어 이해자는 글의 이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언어 사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글의 논리전개상의 접속관계를 파악하면서 글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언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접속어 때문에 글의 논리전개상의 접속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글을 읽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이런 경우 언어 학습자는 교사에게서 흔히 이 글에서 사용된 접속어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주의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글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이 글에서 두번째에 사용된 '그리고'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글의 이해 방향을 지도하게 될 것이다.

(4) 네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 나라의 세시 풍속일은 대체로 계절에 따라 그 행사 내용이 결정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달에 따라 세분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고래로 농업 생산 활동과 불가분의 관련을 가져 왔다. 이러한 관련은 우리의 세시 풍속일이 농작의 개시, 파종, 수확, 저장 등 계절의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 활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세시 풍속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역법이 문제가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접속관계의 파악이 언어 사용자의 심적 태도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기 는 하지만 언어 사용의 목적을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라고 본다면, 글의 논리 전개상 나타나는 접속관계와 글의 표면에 언어적으로 명시화되어 나타나는 접속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사용자들이 글의 논리 전개상의 접속관계와 글의 표면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접속관계를 일치시키지 않는 원인으로서는 언어 사용자가 글의 논리 전개상의 접속관계를 명확하게 알고도 표현의 묘를 살리기 위해 글을 표면적으로 산출할 때 논리전개상의 접속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접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 사

20) 접속어의 글 구조상의 기능과 관련해서, 언어적으로 명시화된 접속관계의 표현을 응집성과 관련된 접속관계로, 글의 내용 전개상의 접속관계를 글의 통일성과 관련된 접속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용자가 글의 논리전개상의 접속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글의 논리전개상의 접속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글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는 의식적인 교육을 통해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접속어의 유형

선행 연구 검토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접속어의 유형 분류는 접속어가 가지는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두 문장이 이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논리적 관계들을 먼저 고찰한 후 각각의 접속어가 어떤 논리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따라 접속어의 의미를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속어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분류의 기준 설정을 잘 하고 언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만 한다면, 하나의 접속어에 하나의 의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료한 체계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접속어에 대한 이러한 설명 방식은 형식주의적인 접근으로, 전체 글 속에서 접속어가 가진 기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접속어에 대해서 유형화해서 생각할 때에는 먼저 글 속에서 가진 접속어의 기능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글 속에서 가지는 기능에 따라 접속어를 유형화할 때는 그 접속어가 무엇을 접속하는가, 즉 그 접속어가 어떤 요소를 다른 요소와 이어주는가에 따른 분류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 중심의 분류 방식은 지금까지의 분류 방식과는 기본적인 관점을 달리 한다. 즉 지금까지의 분류 방식은 접속어라는 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류를 행한 것임에 비해, 기능 중심적인 분류는 먼저 언어의 접속관계가 나타

-
- 21) 글의 논리 전개상의 접속관계와 일치되지 않는 접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발화의 목적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글의 논리 전개상의 접속관계와 표면적으로 사용된 접속관계를 일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접속어 사용의 기본적 기능이 숙달된 후에만 가능한 것이다.

날 수 있는 방식을 살핀 후 그 접속관계의 실현 방법으로 접속어를 분류하는 것으로 중심이 접속어라는 언어 요소가 아니라, 글을 구조화하는 데 접속관계가 가지는 기능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취할 때 지금까지 행해져 오던 형식주의적인 분류와는 달리 하나의 접속어가 다양한 유형에 속하게 되므로 접속어라는 언어 형식 자체에 대한 명료한 체계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방식을 통해서 접속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글 구조에서 가지는 접속어의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언어 이해나 생산을 도와 준다는 접속어 교육의 목적에 적합한 틀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글 구조에서 가지는 기능에 따라 접속어를 분류할 때 그 기준은 접속의 범위와 접속의 거리의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접속의 범위는 접속어가 이어주는 글의 범위로 볼 수 있으며, 접속의 거리는 접속어가 이어주는 요소와 접속어가 인접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속의 범위나 접속의 거리에 따라서 그 접속어가 글 구조상에서 가지는 기능이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접속의 거리와 범위의 파악 여부에 따라서 글 이해의 정도가 달리 나타날 것이다.

먼저 접속의 범위에 대해 살펴 보겠다. 접속의 범위는 어구²²⁾, 절, 문장, 문장들, 단락, 단락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접속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접속어의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 접속어의 유형을 각각의 경우에 사용된 접속어의 예를 통해 살펴 보겠다.

-
- 22) 이러한 분류 방식을 시도한다고 해서 접속어에 대해 고찰할 때 언어 요소 각각이 가진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한 형식적 고찰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본고에서는 언어 이해의 틀과 관련해서 고찰할 때는 글 구조상의 기능에 따른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23) 글의 구성 단위로서 접속의 범위를 살필 때 최소의 단위는 어절이 된다. 언어학적으로 글의 구성 단위를 위계적으로 나타낼 때는 어절과 구를 나누어 살펴지만, 글의 구성상에서 접속의 범위를 살피면서 하나의 어절과 두 개 이상의 어절로 구성된 구로 나누어 살펴는 것은 무의미 하기에 본고에서는 어구라는 개념으로 절 아래의 단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① 어구 접속

“ 앞의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생활 양식, 사고 방식, 가치 관념 또는 예술의 수법, 그리고 학설 내지 사상 등의 유산 가운데서 현재의 생활과 문화의 존속 내지 발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묶어서 전통이라는 말로써 부른다고 이해하여도 과히 잘못됨이 없을 것이다. ”

② 절 접속

“ 다시 말해서 전통에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뿐 아니라, 그것이 전통인 까닭에 귀중하다고 인정되는 가치, 즉 그 고유성과 고전성으로 말미암아 인정되는 본래적 가치도 생기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

③ 한 문장 접속

ㄱ. 이어진 문장 사이의 접속²⁴⁾

“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 환경 및 사회 환경이 크게 달라지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인간의 경험이 늘고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행동 양식 또는 사고 방식이 발견되기에 이르러 옛것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으며, 또는 본래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행동 양식 또는 사고 방식이 무지와 조비이락격의 소홀한 관찰로 말미암아 매우 적합한 것으로 과대 평가되다가 합리적 사고의 발달과 더불어 그 어리석음을 깨닫기에 이르러 과거에 인정되어 오던 가치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

ㄴ. 독립된 문장 사이의 접속

“ 그러나 「청노투」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주로 묘사를 통해서이지 본격적인 시의 이미지에 의해서가 아니다. 본격적인 시의 이미지란 주로 비유를 통하여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만이다. 그러므로 「그 꽃 참 곱군」하는 말은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그 녀석 눈이 셋별 같아」하는 말은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후자에서는 눈을 셋별에 비유함으로써 눈의 빛남을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4) 이어진 문장 사이에 사용된 접속어는 접속관계의 언어적 명시화가 어미의 사용으로 인해 드러나 있는 곳에서 부차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러한 위치에서의 접속어의 사용은 다른 곳에서의 접속어의 사용과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문장들 접속

“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 드러나 보일 때가 많다. 망설이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은 드러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며, 자신만만하게 나서기를 서슴지 않으며,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확실히하고 분명한 태도를 숭상한다. ”

⑤ 한 단락 접속²⁵⁾

“ 소설을 그 분량으로 보아서 길고 짧은 것만 가지고 표준을 삼는다면, 단편소설의 기본 형태는 14세기 이탈리아의 작가 북캣치오가 쓴 ‘데카메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근대 소설의 형태와 체계 아래, 고도의 예술적 의욕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편소설은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리고보면, 단편소설은 근대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가장 연대가 짧은 문학 양식인 것을 알 수 있다. ”

⑥ 단락들 접속

“ 한국의 현대시에서 그 정서가 가장 불건전하고 병적인 것을 찾는다면, 1920년 전후의 낭만주의의 시일 것이다. ‘폐허’와 ‘백조’를 중심 무대로 대량 생산된 이 무렵의 정서는 감상주의 바로 그것이다. 비애, 눈물, 애수, 울분, 탄식, 절망 등이 그 당시의 정서의 목록이다

검은 옷을 해골 위에 걸고
말없이 주춧빛 흙을 밟는 무리를 보라.
이 곳에 생명이 있나니
이 곳에 참이 있나니
장엄한 칠흙의 하늘, 경건한 주토의 거리
해골! 무언!
번쩍이는 진리는 이 곳에 있지 아니하라.
아, 그렇다 영겁 위에

25) 단락을 접속하는 것 중 한 단락을 접속하는 것과 여러 단락들을 접속하는 것은 언어 사용자가 글 구성상에서 사용한 형식 단락 구분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 박종화의 ‘사의 예찬’에서 〉

이러한 죽음의 예찬은 그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박영희의 ‘유행의 나라’와 ‘월광으로 찬 병실’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와 ‘이중의 사망’ 그리고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등은 이 무렵의 정서의 극단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은 불가피한 역사적 요청의 산물이었다. 3.1 독립 운동의 실패로 인하여 조국의 현실은 암담해졌다. 유럽의 낭만주의의 말기적 증세가 조수처럼 밀려왔다. 실의와 비탄에 잠긴 젊은 기질은 그것들에 쉽게 동화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불행한 감상적 낭만주의의 포로가 되었다. 방법의 발견이나 사상의 확립을 위한 생의 재인식이 실행되지 못한 채 낭만적 격정으로 시를 썼던 것이다.”

위에서 접속의 범위에 따라서 접속의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국어에서 글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연결 관계를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은 접속어 외에도 조사나 어미를 사용해서도 가능하다²⁶⁾. 그러나 접속어는 조사나 어미에 비해서 보다 다양한 범위의 언어 단위들을 접속시켜 줄 수 있다. 어구나, 절, 하나의 문장을 접속하는 것은 어미나 조사 등의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문장들이나, 단락, 단락들을 접속하는 것은 접속어가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접속어가 가지는 접속의 범위에 따라서 그 접속어가 가지는 글 구조상의 기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글의 구조와 관련해서 살펴볼 때 어구나 절이나 문장을 접속하는 접속어는 글의 미시구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반면, 단락을 접속하는 접속어는 글의 거시구조 또는 최상위 구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접속어가 하는 글 구조상의 기능과, 어구나 문장은 접속어 외에 조사나 어미에 의해서도 접속이 가능한 반면 단락 이상의 단위는 접속어에 의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

26) 글의 접속관계를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그들 각각이 가진 기능상의 특성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고의 연구 대상이 아니기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을 함께 고려할 때, 접속어가 글 구조상에서 가지는 본연적인 기능은 단락 이상의 글 구성 상의 상위 단위를 연결시켜서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접속어가 가지는 접속의 거리 문제를 살펴 보겠다. 접속의 거리를 접속어가 이어주는 언어 요소들이 접속어에 인접해서 나타나고 있는가의 여부로 볼 때 접속의 거리는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접속어가 이어주는 요소들이 접속어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접속어가 이어주는 요소들이 접속어와 인접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런 두 가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범위를 가진 접속어에서 다 나타날 수 있으나, 접속어와 접속되는 언어 요소들이 인접하지 않는 경우는 접속의 범위가 두 문장 이상의 단위일 때 주로 나타나고 있다. 거리를 가진 접속어의 사용이 나타나는 것은 접속되는 요소들의 사이에 부연적인 내용이 첨가되어 있거나, 논지 전개상 중심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삽입되어 있을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거리를 가진 접속어의 사용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문장간

“ 그러나 한국의 주지시는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남만주의적 처지에서 ‘방법의 자각’을 가지려 했다는 것은 시사상의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방법의 기초가 되는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즉 고전주의적인 생의 자각이 없었다. 방법의 발전과 생의 자각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이 분리되어 강조될 때 기형이 탄생한다. 기형은 미숙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의 회화성을 주장하면서도 시가 ‘언어의 예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회화성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 다른 감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30년대의 주지시는 부분적 성과밖에 거두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

② 단락간

“ 네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 나라의 세시 풍속일은 대체로 계절에 따라 그 행사 내용이 결정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달에 따라 세분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고래로 농업 생산 활동과 불가분의 관련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련은 우리의 세시 풍속일이 농작의 개시, 파종, 제초, 수확, 저장 등 계절의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 활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세시 풍속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역법이 문제가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역서 이전의 생활은 자연력에 의존했었다. 일본의 생활을 기록한 중국의 어느 문헌을 보면, “춘경 추수로 연기를 안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이해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이다. 그 후 고종 32년(1895) 때 태양력을 채용하기까지는 태음력을 써 왔는데,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은 이에 따르고 있다. 태음력은 조석의 간만과 일치하고, 노인들의 계절감에도 맞아, 지금도 농어촌에서는 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세시 풍속이라고 하는 이 연중 행사는 농업 생산 활동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술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다. 이는 아마 농업기술이 유치하여, 소기의 풍작을 어떤 절대자에게 의존하려는 데에 기인한 것인 듯하다.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삼한의 농경 의례 등은 다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

사용된 접속어가 무엇을 이어주며 이어주는 요소가 얼마나 근접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언어 자료의 이해도가 달리 나타난다는 점에서, 접속의 범위와 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접속어 사용의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 이해 과정을 선형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볼 때, 이어주는 요소가 작은 언어 단위이고 이어주는 요소에서 접속어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을 때 접속관계에 대한 이해가 보다 쉽게 나타나는 반면 이어주는 요소가 큰 언어 단위이고 접속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접속관계에 대한 이해가 보다 어려워질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5. 교육적 적용

언어 지식 교육의 목적을 언어 사용 기능의 향상을 위한 지식적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볼 때, 언어 지식 교육은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하

기 위해 필요한 개념적이고 질차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²⁷⁾. 언어 지식 교육이 이러한 본연의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 지식 교육과 언어 사용 기능의 교육이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어 교육의 상황을 살펴 보면 언어 지식 교육과 언어 사용 교육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접속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접속어에 관련된 언어 지식 영역과, 접속어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 기능에 대해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언어 지식 교육으로서 접속어를 다루고 있는 부분²⁸⁾

ㄱ. 품사 설정 문제

*9. (가) 지구는 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나) 언어는 사회적 수정을 다분히 받는다. 즉, 언어는 역사적 연마와 도야를 통해 성립된 것이요, 또 되어 가는 것이다.

(다) 연필 또는 공책을 사야 했다.

(라) 그 바로잡기와 깊이기와 넓히기는 현재 및 장래의 대가의 힘을 기다리는 바이다.

9-(가), (나)의 '그러나, 즉'은 앞의 문장의 뜻을 뒤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는데, 이러한 종류의 말을 접속 부사라 한다. 접속

27) 언어 지식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서 Halliday(1964)의 논의를 살펴 볼 수 있다. 그는 언어 교육을 접근 방식에 따라서 생산적 언어 교수(productive language teaching), 규범적 언어 교수(prescriptive language teaching), 기술적 언어 교수(descriptive language teaching)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 중 언어 지식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기술적 언어 교수를 들었다. 기술적 언어 교수가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언어 교수와 규범적 언어 교수를 위한 지식적 틀을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28) 언어 지식 영역에서 접속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부사에는 9-(다), (라)와 같이 단어를 이어 주는 ‘또는, 및’도 있는데, 이 말들은 문장체에서 많이 쓰인다. 그러나 접속 조사 ‘이나/나’, ‘과/와’와 기능상의 차이가 크지 않다. 접속 부사도 문장 수식의 기능을 가진 것이 있으므로 문장 부사에 들어간다.”

ㄴ. 문장 성분 문제

“ 3. 그는 나를 못 가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곧이 떠났다.

3의 ‘그러나’는 앞의 말의 뜻을 받아 뒤의 문장을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데, 그 뒤의 문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어의 구실을 한다. 접속 부사 중에서 ‘및, 또는’은 독립어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이들은 두 말을 연결해서 하나의 성분을 만드는 구실을 한다.

4. 그가 내일 또는 모레쯤 도착할 거야. ”

㉔ 언어 사용 기능으로 접속어를 다루고 있는 부분

“ 4. 지시어나 접속어, 연결 어미 등을 활용해서 다음 두 글을 응집성이 있도록 고쳐 보자.

(1) 아파트 뒤의 언덕에는 쭉과 냉이가 돌아났다. 어린 계집아이를 사로잡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바구니를 한 팔에 끼었다. 다른 편 손에는 뭉툭한 칼날이 박힌 나무 자루를 쥐었다. 개구리처럼 팔딱거리며 뛰어다녔다.

(2) 자연이 아름답다고 해도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적막하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모조리 자취를 감춘다. 저 산과 바다가 쓸쓸하다. 물론 인간 중심의 사고다. 결합이 많은대로 인간은 세계의 경이다. 사람이 가치의 척도다. 목숨의 고귀함도 드러난다.”

29) 언어 사용 기능으로 접속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중학교 교과서의 쓰기 부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2-1, 9단원 '구성하기' 학습활동 4)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강화도는 천연의 요새이다. 이 섬은 3면이 절벽이고, 그 아래는 진흙이어서 배를 댈 수 없다. 오직 감곶만 배가 왕래할 수 있는데, 그 곳은 물살이 세어서 배만 없애면 아무리 용맹한 적도 넘어올 수가 없었다.

(나)

이 곳의 수비 사령관은 김경징이었다. 그는 영의정 김유의 아들이었다. 이 때, 인조 임금의 몽진해 있는 남한산성의 사정이 말이 아니었다.

(다)

강화도 맞은편까지 쳐들어온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문수산 위에 올라가 보니, 강화도의 수비가 매우 허술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근처의 집들을 모두 헐어, 기둥과 문짝으로 뗏목을 만들어 타고 대포를 쏘며 물을 건넜다. 요란한 포 소리에 놀란 수비군은 이렇다 할 반격도 하지 못하고 무너졌으며, 대장 김경징은 왕자, 비빈과 수많은 부녀자들을 남겨 두고 도망하였다.

(라)

그러나 천연 요새라 자랑하던 강화도는 하루 만에 함락되고 말았다.

(1) 글 (가) - (라) 중에서 주제와 관련이 적은 글은 어느 것인가 찾아내고, 왜 그런지를 밝혀 보자.

(2) 글 (다)와 (라)의 밑줄 그은 부분을 고쳐,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게 되게 해 보자.”

(중학교 2-2, 3단원 ‘원인과 결과’ 학습활동 4.)

접속어에 대해서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 본 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접속어에 대한 지식을 제시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 보겠다. 첫째, 언어 지식으로서 접속어를 다룬 부분에서는 접속어가 가진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고찰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품사나 성분 설정에 대한 것에 그치고 있으며,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접속어가 가지는 의미 기능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품사와 문장 성분 설정을 다룬 부분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혼란을 지적할 수 있다. 품사로서는 접속어를 부사의 하위 부류인 접속 부사로 처리하면서 문장 성분으로는 접속 부사 중에서 문장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나’ 류는 독립어로, 성분 접속의 기능을 하는 ‘및, 또는’ 류는 부사어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 방식은 품사 설정에서는 뒤의 말을 꾸며 준다는 점에서 부사로 설정하면서 문장 성분 설정의 면에서는 뒤의 문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독립어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 기술 체계 내부의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러나, 즉’은 문장을 이어주는 반면, ‘또는, 및’은 단어를 이어주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설명은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접속어의 실상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국어에서 ‘또는, 및’과 같은 접속어도 단어 이상의 단위를 이어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언어 설명 방식 자체에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국어의 접속어의 형식적 의미 기능과 구조상의 기능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현재 교과서의 기술 방식으로는 학생들에게 국어에서 접속어의 용법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언어 사용 기능으로서 접속어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다. 먼저, 언어 사용 기능으로 접속어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는 접속어 자체에 대한 지식의 제공이나 훈련 과정이 없이, 언어를 사용할 때 접속어를 적절히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접속어를 이용해서 글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학생

들이 이미 접속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의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의문시 된다. 또 접속어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접속어 사용 방식 자체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응집성이나 통일성에 대해 다루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접속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 사용 기능 교육에서 접속어를 다루는 부분이 쓰기 부분에만 나타나 있으며, 접속어가 중요한 열할을 하는 읽기 부분에서는 접속어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접속어 사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은 국어 교과서에서 일부 영역에 국한된 채 일부 학년에서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접속어 기능을 충분히 길러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방향에서의 접속어 처리 문제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은 영역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먼저, 접속어에 대한 취급이 언어 지식 영역과 언어 사용 영역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나타나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두 영역의 처리에서 학년간의 계열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접속어에 대해서 언어 지식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만 나타나고 있으며, 국어 교과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 언어 사용 분야에서 접속어를 다루고 있는 것은 중학교 교과서에서만, 그것도 일부 학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편성 체계로는 사용을 위한 지식의 제공을 위한 언어 지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접속어라는 언어 지식 부분을 언어 지식 교육의 목적에 맞게 국어 교육에서 취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접속어를 지도하는 목적은 접속어라는 언어 지식 분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언어 사용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접속어라는 언어 지식 분야의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접속어가 가지는 기능의 측면을 살핀 후 교육을 통해 그러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속어가 가지는 기

능을 글 구조상의 기능과 언어 사용 맥락에서의 기능으로 볼 때, 접속어 교육은 학생들이 언어 자료를 이해할 때 접속어를 통해 표현된 글 구조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어로 표출할 때 글의 논리 전개에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접속어 지도의 방향은 언어 이해의 측면과 언어 표현의 측면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이해의 측면에서의 접속어 지도는 두 가지 하위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사용된 언어에서 나타나는 접속관계를 이해하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접속어가 가지는 접속의 범위와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실제 지도의 측면에서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글에 나타나는 논리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의미 관계 이해의 훈련으로 볼 수 있다. 언어 표현의 측면에서의 접속어 지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어로 나타낼 때 논리적 관계를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접속어 지도에서는 학생들에게 접속관계에 적절한 접속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이해의 측면과 언어 표현의 측면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 지식 제공의 단계로 접속어 각각이 가지는 의미 기능에 대한 개념적 지식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언어 지식으로서의 접속어 지도의 방식은 기본적 지식으로서의 접속어에 대한 각각의 의미 기능에 대한 지도와, 접속어를 언어 이해와 표현의 과정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를 개념적 지식의 제공으로서의 언어 지식 교육이라고 본다면, 후자는 개념적 지식의 제공으로서의 언어 지식 교육과 절차적 지식 제공으로서의 언어 지식 교육의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접속어 지도가 본연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재 편성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교과서는 언어 지식 교육에 대한 부분과 언어 사용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별개의 부분으로 분리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재의 제시 방식은 실제 수업 지도에서도 지식과 기능의 분리라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국어 사용 기능의 신장이라는

국어 교육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기능 신장을 위한 지식의 제공이라는 언어 지식 교육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능과 지식이 통합적으로 제시되는 방식으로 교재의 편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재의 편찬과 이를 사용한 실제 지도가 이루어질 때 사용을 위한 지식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지식과 기능의 통합 지도를 위해서는 접속관계들 다루는 단원은 먼저 접속어에 대한 지식을 제시한 후 이를 이용한 언어 이해 활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접속어에 대한 지식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접속어에 대한 개념적 지식으로는 기초적 지식으로서 접속어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 기능적 측면, 문장이나 단락 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접속관계의 유형, 접속어가 가지는 접속의 범위와 거리 등을 들 수 있다. 접속어에 대한 절차적 지식으로는 접속어가 사용된 글의 구조 파악의 방식, 글을 표현할 때 접속관계에 적절한 접속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접속어에 대한 지식의 교수는 부분적 훈련 방식과 전체적 훈련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분적 훈련 방식은 접속어가 명시된 글을 제시한 후 여기에서 접속의 범위와 거리를 찾게 하는 것과 접속어가 명시되지 않은 글을 제시한 후 글의 접속관계에 맞는 접속어를 넣게 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전체적 훈련 방식은 글의 전체적 구조 파악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수 방식이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거시 구조와 최상위 구조를 가진 글을 교재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들은 기존의 교과서에서 사용되던 글들과는 달리 적절히 구조화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접속어에 대한 지식적 교육이 이루어진 후 접속어를 사용해서 글을 쓰거나 접속어가 사용된 글을 이해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고에서는 언어 사용을 위한 지식의 제공이라는 언어 지식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언어 지식 교육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접속어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접속어는 글의 논리적 구조 제시와 언어 사용 맥락에서 가지는 기능의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학습자들이 이러한 기능을 적절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속어가 가지는 접속의 범위와 거리의 문제에서 접속어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어 교육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언어 지식 교육이 언어 기능 교육을 위한 지식적 기초, 교육의 내용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의 두 측면이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참 고 문 헌〉

- 강우원(1991), 「우리말 이음구조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봉군(1980), 문장 기술론, 삼영사.
 김일용(1982), 「우리말 대응어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일용(1989), “담화의 짜임과 그 전개”, 『인문 논총』 34, 부산대학교.
 김정애(1988), 「지시어, 접속어를 통한 독해력 신장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노석기(1987), “국어 담화의 위임 관계 연구”, 『외대 논총』 5, 부산외대.
 도수희(1988), 국어 대응어 연구, 탐출판사.
 문덕수(1977), 개고 신 문장 강화, 성문각.
 문용진(1991), “Sentence Connector가 이해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 『사대

- 논문집』 22, 부산 대학교.
- 유목상(1970), “접속어에 대한 고찰”, 『한글』 146.
- 이건원(1984), “문장 접속 연구”, 『어학 연구』, 20-3,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 이광정(1987), 국어 품사 분류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 한신문화사.
- 이용주(1969), “부사접속화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논문집』 6,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희승(1968), 새문법, 일조각.
- 장정줄(1982), 『국어의 접속사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 오(1991), 『지시어, 접속어 지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 최현배(1977), 우리말본, 일조각.
- 허 옹(1983), 국어학, 샘문화사.
- de Beaugrande, Robert, & Wolfgang Dressler(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gman.
- Halliday, M.A.K., & Ruqaiya 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 Mayer, B.J.F., & G.E.Rice(1984), “The structure of text”,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Pearson (ed.), Longman.
- Rudolph, E.(1988), "Connective relations - Connective expression - connective structure", Text and discourse constitution, Petofi (ed.), Water de gruyter.
- van Dijk, T.A. (1977), "Connectives in text grammar and text logic", Grammars and descriptions, van Dijk & Petofi (eds.), Water de Gruyter.